

인력부족! 관리꿈수! 위험천만 고대의료원 그것이 알고 싶다!

고대의료원, 우리 병원은 안전한 것일까?

정작하게 법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JCI,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기준과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지부는 시설팀장들의 일방적인 사무실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위험과 안전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건물 및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의료기관평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근로기준법, 의료법, 소방법등)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1. 그것이 알고 싶다!

병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① 여기서 설비 관리 꿈수로 건물 사고 위험 증가!

병원의 시설 중에서는 열, 전기, 소방 등 법적으로 관리자를 선임등록 후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병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그에 맞는 선임자를 찾기 어려워 타부서의 관리자를 선임으로 등록하는 꿈을 쓰고 있다.

직원 한 명이 여러 파트를 관리하게 되면 노동 강도가 높아져 직원안전에 위험을 초래 한다. 또한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전문성이 낮아져 조그마한 고장이나 실수도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의 책임은 선임등록을 한 직원이 지게 되는데 결국 애먼 직원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직원들이 각 부서로 나뉘어 세분화된 업무지침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격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분화된 업무분장과 담당으로 전문성을 높인다면 빠른 사고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평상시에 생긴 이상 현상도 정확하게 발견하여 예방이 가능해진다.

② 방재센터의 관리자 업무 중복으로 화재위험 노출!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시설팀 내 방재센터가 소방시설 유지와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대의료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자가 5명으로 6명이여야 하는데 고대병원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있으나 보조자 중 업무를 중복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 결국 고대의료원은 소방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방재센터의 직원의 자격증만 등록해 놓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느라 정작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 그것이 알고 싶다!

병원은 과연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① 생리휴가 못 가게 하는 법 위반

고대병원원 여성 직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단 한 번도 생리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이 허다하다. 그래서 2018년 교섭을 통해 생리휴가를 부당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를 고발했다. 의료원은 직접 생리휴가 사용율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0월 기준 안산 53%, 구로 59% 안암 56%로 60%가 넘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유를 직접 조사하니 ‘생리휴가를 왜 가야 하나’, ‘생휴는 인력이 없으니 쓰지마라’ 는 등의 부서장의 금지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73조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고대 병원은 한 달에 몇 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까?

② 기계실 선임기사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계실 또한 마찬가지다. 기계실은 열사용기자재를 관리하는 곳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에 맞춰 관리사를 선임하고 근무지에 반드시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한다.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8조(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 40조 제 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이상으로 한다.)

고대병원원 교대 근무의 특성상 주간과 야간 근무 시 선임관리자가 1명씩 있어야 하며 본관과 신관으로 나누어진 경우 건물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

이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벌칙,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③ 안전관리자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고대병원원 300명이상 상시 근로를 하는 사업장으로 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특히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2명 이상의 전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 12조에 의거하여 타 부서의 일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원이 이를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15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현재 우리 병원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④ 인증준비로 OFF에 나와서 일해도 무일푼, 임금체불!

직원들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인증이 시작될 때 즈음이다. 그 이유는 인증준비로 밤을 새고 쉬는 날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주지도 않는다. 인증준비로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다면 이는 임금체불다!

3. 그것이 알고 싶다!

병원은 평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고대의료원은 3개 병원 모두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고 있다. 매 주기마다 기준에 따라 운영준비를 하지만 이것이 평상시에도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비효율적인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과 의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1. 암기식 질문을 유도하는 기준 문구 수정 2. 불필요한 암기식 조사 방지 3. 부적절한 조사 및 업무 과중 방지 4. 중간 자체 현장 조사 시기 조정에 대해 공표했고 모든 병원으로 지침서가 전달되었다.

이에 우리지부는 평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과 인증기간 이같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조합원 인터뷰 및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병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내외적인 모든 수단으로 투쟁할 것이다.

병원이 시설 위험을 등한시 하고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통합하고

운영원칙이 없는 체로 법 위반을 일삼았다면, 우리지부는 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 및 대내외 적으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병원은 모든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설팀 통폐합 안암병원 시설팀 직원 투표 실시

우리지부는 시설팀 사무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장형구 경영관리실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투표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부서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교대근무 부서를 대상으로 전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 인원 29명 중 찬성 3표, 반대 24표, 무효 2명으로 전체 부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우리지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사무실 통합 입찰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시 시설팀 법위반과 관련한 모든 부분의 법률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